

# 바보야, 문제는 우유생산이야~!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원유가 현실화 논쟁이 불붙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낙농가를 두고, 정부는 물가타령, 낙농진흥회는 정부눈치, 유업체는 자가당착 협상전략에만 골몰하는 눈치다. 통계청은 통계 맞사지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우유생산비를 내놓고, 정보공개 요청에는 말장난 수준의 비공개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유업체들은 현장의 낙농가들에게는 최소 100원 이상은 올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협상장에서는 41원을 제시해 낙농가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금번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또 다른 변수다.

웬지 개운치 않다. 원유가 현실화의 본질은 낙농가의 목장경영 안정으로 우유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낙농가들이 물가인상의 주범인 양 몰고 가는 작태가 슬프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벌써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원유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7월 말(6.21~7.30)까지 40일 동안 6차례 열렸다. 40일 중 거의 한 달은 낙농진흥회의 제시안을 두고 시간을 보냈다. 원유가 현실화 논의를 잘 이끌어야 할 낙농진흥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 사이 원유가현실화 및 낙농회생대책 촉구 7.26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 대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협회 집행부는 농성에 돌입했다. 원유가 현실화 논의 때 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



실이 지금의 낙농현실이다. 열개 중 한개 목장은 소위 유대를 한 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통계청의 수치가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우유는 부족한데 낙농가는 우유생산을 접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정부는 우유부족을 이유로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분유 3만톤을 포함한 수입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 물량을 통 크게 풀어버렸다. 7.1일부로 한·EU FTA도 발효되었다. 아마도 연말 즈이면 미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될 전망이다. 이쯤 되면 국내 원유부족 썸이야 가뿐히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 일게다. 아니 우리 낙농가들은 생산을 더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물가안정 위한답시고 낙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게 한국낙농의 슬픈 현실이다.

느긋한 유업체와 갑갑한 농식품부 사이에서 답답한 우리 낙농가들은 1리터에 1,000원은 받게 해달라며 원유가 현실화를 외치고 있다. 만에 하나 낙농기반 붕괴로 우유부족 사태가 벌어져도 그럴싸한 이유가 또 만들어 질 것이다. 결국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는 법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본질은 목장의 경영안정이다. 정부나 유업체 바보들에게 외치고 싶다. 문제는 우리우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어냐고. ☹